

시론



조영서
주월초등학교 교사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강연에서 던진 이 질문들은 단순한 문학적 성찰을 넘어, 우리가 오늘날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깊이 고민하게 만든다. 한강 작가는 과거의 고통과 상처가 단순히 잊힌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의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 또한 그러한 역사를 품은 도시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치열한 과거를 지닌 광주는, 이 역사적 유산을 단순한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 학생들이 과거의 희생과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를 변화시키며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본질적 방향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우리는 5·18의 희생과 아픔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연대했던 정의의 가치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심어주고 성숙한 시민으로

다시 만난 세계

- 과거와 현재 이어 미래 만드는 광주 교육

로 사는 삶을 그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책임을 느끼도록 스토리텔링과 예술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학작품과 같은 예술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해 광주의 역사를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며, 역사 속 개인의 이야기들을 통해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보고 깊이 몰입하여 사회적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판적 사고와 역사적 통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 이를 현재와 연결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실에서 역사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각도로 찾아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활동,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열어 학생들이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몸소 알아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서 어린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은 민주주의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이돌 응원 붐을 들고 길거리로 나와 K-POP을 부르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을 통해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우고 민주주의 사회를 누리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해 왔다. 우리 아이들은 배운 대로 우리의 힘으로 찾은 민주주의가 훼손돼서는 안 되며 우리 국민이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민주주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교육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거리에 울려 퍼지는 ‘다시 만난 세계’의 가사처럼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반복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광주교육은 역사를 통해 기억하고, 공감을 통해 배우며, 책임감을 통해 행동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본질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기억을 위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살아 있는 교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광주교육은 과거의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 광주가 고유명사가 아닌 우리의 보통명사로서 다시 만난 세계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社說

다급한 자원회수시설, 주민 설득 광주시 행정력 관심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광주시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소각장이 없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때문이다. 선진지 견학 등 인식 개선 노력도 별반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는 새로운 방식으로 3차 공모를 진행했고, 광산구 삼거동 일원(8만3천700㎡)이 입지후보지 1순위로 결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1~2년 단축될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하며, 부지 경계에서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다는 점을 높이 샀다.

실제로 입지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조건 등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배점표를 작성하고, 현장 답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친 결과 88.6점으로 최고였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고시를 통해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짓는다.

앞서 응모 요건 미충족, 신청 철회 등의 사유로 2023년 4월과 12월 1, 2차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올해마저 넘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2번의 공모에서 신청지 인근 거주민의 집단적 반대에 부딪혔고, 3차 공모에서는 5개 자치구가 1곳 이상씩 후보지를 신청하도록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특히 삼거동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리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더 물러설 곳이 없다. 내년 8월 말~9월 초 입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시 실패하면 쓰레기 대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남아있는 후속 절차 진행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는 이유다. 광산구와 손잡고 혐오시설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 주민들 설득에 성공할 것인지 광주시의 행정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량 통행 재개 광주시철도 2호선 준공 속도낼 때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지산사거리-산수오거리-두암지구입구) 교통 통제가 풀렸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2019년부터 일부 차량이 점유했던 상황이 해소되면서 기존의 왕복 8차로로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하 토목공사를 마무리했고, 복공판도 모두 철거됐다. 방호벽도 치웠다. 이 일대는 그동안 도로 높낮이가 다른 단차, 패임, 잦은 차선 변경 등으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 곳 뿐만 아니다. 순차적으로 도로포장 및 정비비를 마친 곳부터 차량 통행을 재개한다. 다만 임시포장이어서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이달 중으로 상무중앙로, 금화로, 대남대로, 월드컵서로 등 4개소도 정상화된다. 광주시는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공사 구간을 내년 8월까지 완전 복구할 계획이다. 암지반 등 지장물이 많이 발견돼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

새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환율이 급등하는 등 비상경계이 겹쳐 리스크가 심화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보호무역의 바람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특히 밀접한 도시철도 확충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당초 예정한 대로 2025년 말 준공한 뒤 1년 간 시범 운전을 거쳐 2호선 1단계는 2026년 말 개통돼야 한다. 아울러 올해 착공한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첨단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도 목표한 2029년 완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는 1단계 개통 가시화에 맞춰 대차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내버스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노선 전면 재편도 순탄하게 진행해야 한다. 시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첫 복구를 반기고 있다. 수년 간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신속하고 더 안전하게 전체 도로의 완전 개방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추운 겨울처럼 어깨가 얼어버린 듯 굳는 환자들이 있다.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하거나, 팔을 들어올리는 동작이 제한되는데 이는 ‘오십견’ 질환에 해당한다.

50대에 호발하므로 ‘오십견’이라고 부르지만 근래엔 30대, 40대에도 나타나며 영어 명칭이 ‘Frozen shoulder’로 ‘어깨가 얼어버렸다’는 뜻의 ‘동결견’이 더 합당한 진단명이다. 또한 어깨 관절의 문제로 보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한다.

동결견은 인구 전체에서 약 2%의 발생율을 보이는 질환이다. 발병원인으로는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한 내인적 요소와 수술이나 외상 같은 외인적 요소를 나누지만 뚜렷한 원인은 규명하기가 어렵다.

특징적인 증상은 어깨의 통증과 움직임 제한이다. 어깨를 감싸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염증이 악화되면 수면통도 심

어깨가 굳고 아픈 ‘동결견’

해져 환측으로 누워 잘 수가 없다. 또한 관절낭의 구조으로 어깨를 바깥으로 돌리거나 팔을 들어올리는 능동적 움직임과 타인의 도움으로 어깨를 움직이는 수동적 움직임이 모두 제한된다.

동결견은 총 3가지 단계를 보인다. 1단계는 통증기로, 최초 증상으로부터 3개월 동안이다. 이 시기에는 어깨를 움직일 때와 더불어 휴식시에도 통증이 심해 적극적인 통증치료가 필요하다. 2단계는 강직기로, 3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이다. 통증은 1단계보다 감소하지만 움직임 제한이 심해진다. 3단계는 회복기로,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이다. 통증은 거의 없지만 관절 강직으로 움직임 제한이 악화되거나 유지된다.

동결견의 진단은 다른 어깨질환들을 모두 감별하고 난 후에 가능하다. 공통적인 기준으로는 어깨통증을 1개월 이상 호소해야하고, 어깨의 능동 움직임과 수동 움직임에서 모두 제한을 보이며, X-ray 검사 상 특이소견이 없어야 한다. 추가로 수면통을 보이거나 팔꿈치까지 통증이 이어진다면 동결견을 더 의심해볼 수 있다.

동결견은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과 꼭 감별을 해야한다. 세 질환 모두 어깨통증을 호소하며 능동 움직임이 불편하지만 동결견만이 수동 움직임의 제한을 보인다.

상기했듯이 동결견은 최초 3개월간 통증기에 해당하여 통증이 매우 심하기에 최소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 통증이 호전되어가면 움직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 재활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한방치료에서는 약침치료, 한약치료를 활용한다. 약침치료 중 하나인 봉약침을 다용하는데, 봉약침에 함유된 멜리틴(melitin)이라는 성분이 염증이 관여하는 화학적 매개물질들을 차단해 소염·진통 작용을 해준다.

한약치료는 동결견의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다. 창출(蒼朮), 백출(白朮) 등이 포함된 이출탕(二朮湯), 반하급출탕(半夏苓朮湯)은 진통, 통기(通氣)의 작용으로 동결견 환자의 아간 통증을 관리해주는 처방이다.

동결견 환자들은 꾸준한 스트레칭, 운동으로 어깨의 움직임 제한을 예방해야 한다. 양손으로 수건을 길게 잡고 어깨를 움직여 주거나, 환측으로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을 아래로 떨어뜨려 시계추처럼 움직이는 운동을 권유한다. 운동 시 통증이 있더라도 관절이 굳지 않도록 조금은 참아주어야 한다.

동결견이 통증이 심하고 예후가 오래가는 힘든 질환이지만 그럼에도 치료와 관리가 가능하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청소년 마약, 나락의 시작



청소년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마약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독성’이다.

중독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중독 되었다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치료를 하는 과정과 중독 이후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중독 전과 같은 삶을 살기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먼저 마약에 중독되면 뇌순상, 중독, 각종 질병의 위험과 과다 복용으로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해 등 정신적 질환과 더불어 학업에 지장을 주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악화 등의 위험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약 시작은 곧 끝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두고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부터 마약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면 안된다. 잘못된 정보가 많고 마약 사용자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마약 권유시 단호하게 거절하기, 혼자 대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이나 112로 신고를 해야한다.

세 번째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식이나 물건은 절대 받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떠날 것, 마지막으로 고액의 수익을 미끼로 해 알 수 없는 물질을 운반하도록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접하면 한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앞으로의 긴 인생을 마약과 함께 가족도 친구도 없는 피폐한 삶을 보내게 될 것이다. 마약은 시작과 동시에 중독이다.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 학교, 사회,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켜내자.

〈허아록·고흥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건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청소년 마약, 나락의 시작



청소년 마약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마약에서 가장 큰 특징은 ‘중독성’이다.

또한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해 등 정신적 질환과 더불어 학업에 지장을 주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 악화 등의 위험이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약 시작은 곧 끝이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해두고 청소년 스스로가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픽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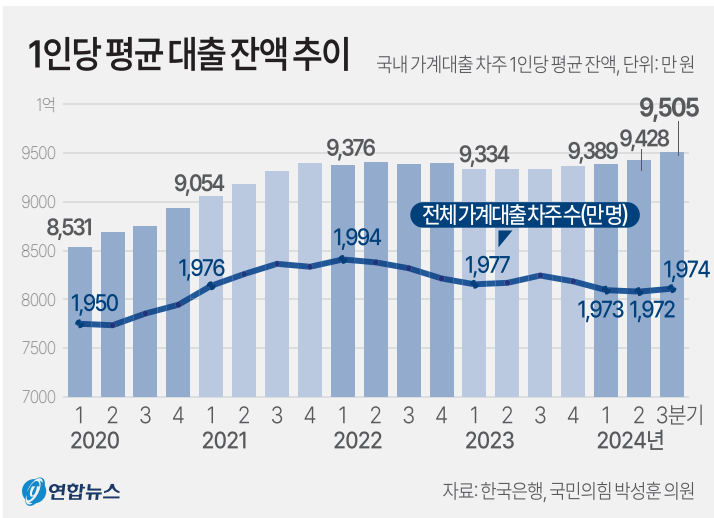
1인당 가계대출 9천500만원 첫 돌파...비은행 연체 9년만에 최고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1만원으로 처음 9천만원원을 넘

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1천97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천933만명에서 4분기 1천979만명, 올해 1분기 1천973만명, 2분기 1천972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편,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p 높아졌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치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체부 650-2065

지역특집부 650-2060

사 진 부 650-2080

설 실 650-2006

T V 본 650-2009

서울지사(02) 786-9488

광 고 문 의 650-2099

마 케 팅 본 부 650-2070

경 영 지 원 국 650-2011

사 업 본 부 650-2007

업 무 국 650-2020

FAX 650-2016

광 고 국 650-2017

편집국 650-2017

입 문 국 650-2019

·본지는 신문료인 감리 및 고 실행요금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9)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